

## ■ 정책동향

### 산자부, 지역별 수출증대 방안 마련·추진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지역별 수출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자원부가 이번에 마련한 수출증대 방안은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위주로 추진할 사업을 선정,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rogram)을 작성한 것으로, 이의 추진을 위해 수출에로 타개를 위한 외국과의 교섭, 국내 관련부처와의 협의,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조 추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역별 수출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본부에는 지역별 수출대책반, 해외 현지에는 상무관이나 KOTRA

무역관이 중심이 된 해외 현지 수출대책반을 구성하여 업계의 수출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금년 7월말 현재 지역별 수출상황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북미 6.9%, 유럽 26.3%, 대양주 41.8%, 중동 33.6%, 아프리카 9.4% 증가한 반면, 작년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 아시아지역은 외환위기 및 금융불안 등 교역여건의 악화로 15.5% 감소하는 등 수출대상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산자부, 홈페이지에 『Y2K欄』 개설 서비스

산업자원부에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컴퓨터 2000년 문제(Y2K)』의 산업분야 대책과 추진상황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영문으로 『Y2K欄』을 개설, 시험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Y2K 실상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의 내용과 체계를 중점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Ⅱ)』에

의하면, 산자부를 비롯 韓電, 가스공사, 송유관공사 등 산하 중점 추진기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Y2K(2000년 문제)欄』을 신설, 우리나라의 Y2K에 대한 실상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산자부에서는 홈페이지에 산업분야의 Y2K 대책과 추진상황을 소개한 『Y2K欄』을 개설, 9월 1일부터 시험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내외 Y2K 관련 사이트를 연계하고 있다.

『Y2K欄』은 소개, 정의, 추진상황, 자료실, 해

결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정부지침, 민간기업체의 해결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하 중점관리 추진기관인 韓電은 지난달부터 『Y2K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공사, 송유관공사도 9월 말경에 『Y2K欄』을 개설·운영키로 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Y2K 대처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해외투자 유치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영문 『Y2K欄』을 개설하여 해외에 우리나라 Y2K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Y2K欄』이 우리나라 산업분야의 Y2K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그 실상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場이 되도록 보다 내실있게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영문내용은 집중 보강하여 해외 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 전기기기, WTO 정부 조달협정 활용 개요

지난해 발표된 세계무역기구(WTO) 조달협정은 비금속 광물제품과 철강의 수입촉진을 유발하는 대신 통신 및 음향기기·전기기기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에 따르면 “’97년 1월 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 배려속에서 국제경쟁으로부터 보호 받았던 국내 조달시장이 개방돼 비경쟁적이던 시장에 까지 국제경쟁 요소가 도입됐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자체 조달 능력, 국제규범에 대한 인식, 정부 조달시장의 투명성 등을 높이고 선진국 중심으로 독과점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요 공공서비스 분야를 정부조달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달시장에서의 주요 4대 업종중에

서 비금속 광물제품·철강 및 철강제품의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주요 교역국인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으로 부터 수입 특화를 나타내고 있어 시장잠식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주요 4대 업종 이외에도 중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가운데 합성수지·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과 비철금속 및 동제품·원동기 등도 시장잠식이 상당부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신 및 음향기기·전기기기 분야는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한 수출특화 업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으로 국내시장의 잠식이 있겠지만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크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경쟁력을 높여 조달시장의 개방효과를 극대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